

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사고 발생 실태

최혜정[†] · 소미현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Safety-awareness and Accident Occurrence of Elementary-school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Hye-Jung Choi[†] · Mi-Hyun So
Dep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College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safety education in schools, experience of accidents, and safety awareness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also presents realistic guidelines for safety education, which can effectively lead to the safety behavior of students.

Methods: We carried out questionnaire survey by convenient sampling method to 6th grade students of 3 elementary schools in Gyeonggi-do area that can understand the questionnaire and express their own opinion for safety awareness from February 15, 2013 to February 1, 2013. We use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266 questionnaires except dishonestly answered 34 questionnaires.

Results: 1. For accident occurrence by gender,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was also higher than female students among students having an accident($\chi^2=5.142$, $p=0.029$).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ce in accident occurrence by how they go to school. Students going to school on foot have higher accident rate($\chi^2=11.447$, $p=0.010$). 2. In terms of safety awareness level, students having no accident was higher than students having an accident($F=3.828$, $p=0.005$) and students usually keeping safety rules have higher safety awareness($F=14.285$, $p=0.000$). 3. When parents give safety education to their children as often as possible, the safety awareness level of students was high($F=5.257$, $p=.006$). 4. Students having an accident have no safety education experience than students having no accident($p<0.05$). They have never had safety education from a health teacher.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ce($p<0.01$).

접 수 일 : 2013년 4월 14일, 수 정 일: 2013년 4월 28일, 채 택 일: 2013년 4월 29일

[†] 교신저자 : 최혜정 (441-74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수원여대길62)

Tel: 031-290-8120, Fax: 031-290-8142, E-mail: choihj8745@naver.com

Conclusions: Accordingly, we need to make students have safety attitude to prevent safety accidents. To achieve it, safety awareness has to be inspired. Systematic and various education programs that can give connected education with local community network to the students and parents is required.

Key words: Safety accidents, Safety awareness, Safety education

I. 서론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만, 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요인도 그만큼 증대되었다(한형상과 손기상, 2011).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망 원인 분류에 의하면 14세 미만 아동 사망 원인의 1위를 사고가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은 어른에 비해 2배 이상이며, 이 중 사고사망 비율은 50.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그로인한 우리나라 한해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조 136억 원이며,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약 16억 8천만 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보건복지부,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와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부재는 우리사회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행 논문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질문응답자중 많은 경우가 사고예방을 위해 조기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사고의 88%는 인적요인에 기인하며, 10%는 불완전한 물질적,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고의 98%는 예방이 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einrich 등, 1980).

따라서 안전의식이 저조하고 가치관 형성이 미흡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습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기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공배완과 안황권, 2009). 또한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각 교과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련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안전교과목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권상순, 2005).

초등학교 어린이는 안전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강을 유지하고, 사고와 재해예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안전을 도모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된다. 이 때 안전에 대한 의식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지영, 2009).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생활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 가치관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 안전교육을 수행하여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임현주, 2005).

아동들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사고발생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신경남, 2006; 박화숙, 2000),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혜연, 2009; 이혜진, 2007; 정우승, 2005), 사고예방 교

육효과에 관한 연구(김지영, 2009; 고석, 2006; 남상길, 2004), 성격유형과 안전사고 실태(강준구, 2008; 양혜리, 2008) 등이 있다. 이는 주로 사고 실태 및 안전사고의 유형이나 안전교육 실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초등학교 시기는 특히 아동들의 생활습관이 형성되고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태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실천 의식 및 실천에 중점을 두는 안전예방 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박화숙 외, 2000), 선행연구들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및 안전실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의 안전사고의 감소 및 안전의식이 고취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속적인 안전보건 행태와 의식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연구는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고발생경험과 안전의식정도, 안전교육에 관한 특성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안전행동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안전의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가능하고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경기지역 일부 3개교 초등학생 6학년을 모집단으로 편의 표본 추출하여 2013년 02월 01일부터 02월 15일까지 수행하였다. 조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결과분석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신뢰성이 낮은 34부를 제외한 총 266부

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설문지 구성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문항(성별, 거주형태, 등교형태), 사고경험관련 실태 3문항(사고경험횟수, 안전사고 부주의 인지정도, 평소 안전규칙 준수정도), 안전의식 20문항,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특성(안전교육의 경험유무, 대상자가 부모, 담임, 보건교사로부터 받은 안전교육 횟수) 4문항으로 총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지 측정도구는 이창희(2010)가 수정 보완하고, 타당도 검증을 받아 개발한 도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안전의식정도의 측정기준은 질문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정답에 1점, 오답에 0점을 부여하고 총점을 합산하여 0점에서 2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75$ 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19.0. SPSS Inc.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안전사고 경험관련 실태, 안전교육에 관한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정도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3요인 이상에서 요인간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검정으로 scheffe의 다중비교를 하였으며, 안전사고 발생유무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안전교육관련 특성의 관계는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26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

별은 남자 124명(46.6%), 여자 142명(58.4%)이었으며, 거주형태로는 ‘아파트’가 7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단독주택’이 18%이었다. 종교형태로 ‘도보’가 5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전거’ 26.3%이었다<Table 1>.

<Table 1> Safety awareness according to Safety accidents status of subjects

	Division	N	%
Gender	Male	124	46.6
	Female	142	53.4
Living type	Single-family Housing	48	18.0
	Apartment	190	71.4
	Villa	24	9.0
	Etc	4	1.6
Type of going to school	Walking	159	59.7
	Bicycle	70	26.3
	Public transportation	2	0.8
	Car	35	13.2
Total		266	100.0

by the descriptive statistics

2. 대상자의 안전사고 실태에 따른 안전의식

안전사고 실태에 따른 안전의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항목은 사고경험 유무와 평소 안전규칙 준수정도였다<Table 2>. 사고경험이 없는 경우가 사고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안전의식 정도가 높았다($F=3.828, p=0.005$). 또한 평소 안전규칙을 잘 안전의식 수준이 높았으며($F=14.285, p=0.000$), 사후분석 결과 평소 지키지 않는 그룹과 잘 지키는 그룹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사고 부주의 인지정도는 대상자의 안전사고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안전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안전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항목은 부모님의 안전교육 실시정도였다($p<0.05$). 부모님이 안전교육을 자주 실시할수록 안전의식 수준이 높았다($F=5.257, p=.006$). 사후분석 결과 부모님이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그룹과 자주하는 그룹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보건교사의 안전교육 실시정도에 대해서는 ‘1달에 4번 이상(19.00 ± 0.00)’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의식정도는 ‘받은 적이 없다’(16.97 ± 2.46)로 교육을 많이 받았던 학생일수록 안전의식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3>.

<Table 2> Safety awareness according to Safety accidents status of subjects

Division		n(%)	Safety awareness M±S.D	t or F(p)
Accident experience	No	94(35.3)	18.06±22.38	3.828(.005**)
	Yes	172(64.7)	17.06±22.58	
	1time	87(32.7)		
	2times	23(8.6)		
	3times	15(5.6)		
Degree of safety accidents carelessness	Unawareness	48(18.0)	17.75±2.58	1.900(.185)
	Don't know	105(39.5)	17.06±2.68	
	Awareness	113(42.5)	17.60±2.38	
Usual degree of compliance with the safety rules	Uncompliance ^a	38(14.3)	16.13±2.59	14.285(.000***)
	Moderate ^{ab}	147(55.3)	17.14±2.72	
	Compliance ^b	81(30.5)	18.50±1.68	

by the independent t-test or the one-way ANOVA test (**p<0.01, ***p<0.001) and by Scheffe method for multiple comparison.

<Table 3> Safety awareness according to safety education degree of subjects

Division		n(%)	Safety awareness M±SD	t or F(p)
Parents' safety education degree	No ^a	43(16.2)	16.11±3.00	5.257(.006*)
	Sometimes ^{ab}	118(44.4)	17.19±2.58	
	Often ^b	105(39.5)	18.20±2.06	
Homeroom teacher or Physical education teacher's education degree	No	55(20.7)	17.14±2.63	.418(.659)
	Less than 12 times per year	110(41.4)	17.52±2.46	
	12 or more times per year	101(38.0)	17.44±2.61	
Health teacher's of safety education degree	No	70(26.3)	16.97±2.46	1.772(.172)
	Less than 4times per year	194(72.9)	17.56±2.58	
	4 or more times per year	2(0.8)	19.00±0.00	

by the the one-way ANOVA (*p<0.05) and by Scheffe method for multiple comparison.

4. 안전사고 발생유무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안전사고 발생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항목은 성별과 교통수단이였다. 성별에 따른 사고발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으며, 사고를 경험한 학생

중에서도 남자가 더 높았다($\chi^2=5.142, p=0.029$). 또한 사고발생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사고발생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도보로 등교할 때 사고발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1.447, p=0.010$). 반면 주거형태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 according to have safety accidents

	Division	Have safety accident		$\chi^2(p)$
		Have(%)	Not(%)	
Gender	Male	89(71.8)	35(28.2)	5.142(.029*)
	Female	83(58.5)	59(41.5)	
Living type	Single-family Housing	36(75.0)	12(25.0)	5.395(.145)
	Apartment	118(62.1)	72(37.9)	
	Villa	14(58.3)	10(41.7)	
	Etc	4(100)	0(0)	
Type of going to school	Walking	96(60.4)	63(39.6)	11.447(.010*)
	Bicycle	43(61.4)	27(38.6)	
	Public transportation	2(100)	0(0)	
	Car	31(88.6)	4(11.4)	

by the χ^2 -test (*p<0.05)

5. 안전사고 발생유무에 따른 안전교육 관련 특성

안전사고 발생유무에 따른 안전교육 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유무와 보건교사의 안전교육 실시정도에 따른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사고발생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사고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0.05). 또한 사고발생 경험에 있는 대상자가 사고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보건교사의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p<0.01).

<Table 5> Safety education frequency according to Have safety accidents occurs of subjects

	Division	Have safety accident		total	$\chi^2(p)$
		Have(%)	Not(%)		
Received safety training experience	No	163(63.4)	94(36.6)	257	5.091(.018*)
	Sometimes	9(100.0)	0(0)	9	
Parents' safety education frequency	No	32(74.4)	11(25.6)	43	2.808(.246)
	Sometimes	77(65.3)	41(34.7)	118	
	Often	63(60.0)	42(40.0)	105	
Homeroom teacher or Physical education teacher's education degree	No	42(76.4)	13(23.6)	55	5.338(.069)
	Less than 12 times per year	64(58.2)	46(41.89)	110	
	12 or more times per year	66(65.3)	35(34.7)	101	
Health teacher's education degree	No	56(80.0)	14(20.0)	70	15.434(.000***)
	Less than 4times per year	114(58.8)	80(41.2)	194	
	4 or more times per year	2(100)	0(0)	2	

by the χ^2 -test (*p<0.05, ***p<0.001)

IV. 논의

우리나라 사고사망 분포의 특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고발생 수준이 중년기 이후 사고발생 수준보다 훨씬 심각하다. 특히 19세 미만 연령층의 사고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학생들에 대한 안전지도 및 관리가 철저히 요구된다(이명선과 박경옥, 2006).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안전사고 실태에 따른 안전의식 정도는 사고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안전의식 정도가 높았으며, 평소 안전규칙을 잘 지킬수록 안전의식 수준이 높았다($p < 0.01$). 이는 이창희(2010)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안전의식이 평소 안전실천과 관련이 있으며, 결국 사고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초등학생은 쉬는시간 활동, 체육활동, 놀이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게 놀이로 인식하는 시기이므로(손기상, 2011) 상황에 따른 정확한 안전수칙 교육이 요구된다.

안전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정도는 부모가 안전교육을 자주 실시할수록 안전의식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p < 0.05$), 이는 심은순(2003)과 권상도(1991), 전양금(1983)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여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안전교육 실시 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의식개선이 중요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 국가들처럼 부모대상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능동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의 유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안전사고 발생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사고발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으며, 사고를 경험한 학생 중에서도 남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박대성(2005)과 심은순(2003), 이형엽(2002), 지미영(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고발생 빈도와 일치하였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많은 격렬할 운동이나 과격한 행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평소 남학생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지도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횟수와 깊이의 차이를 두어 흥미있는 교육으로 남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등교형태에 따른 사고발생은 사고발생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사고발생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도 도로 등교할 때 사고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그러나 심은순(2003)과 김소선과 이은숙(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자가용 이용자의 사고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 학교의 지리적인 특성과 학교의 설립형태 등의 영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안전교육 경험 유무, 보건교사의 안전교육 실시 정도였다($p < 0.05$). 사고발생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사고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발생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사고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보건교사의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둘러싼 이차적인 환경인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고, 학교중심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먼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형식적이므로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안전교육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윤선화, 2012). 이러한 안전교육

이 사고경험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며, 현실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교과 간 안전교육의 내용을 상호 보완 및 강화해주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교육시간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와 다르게 심은순(2003)의 연구에서는 성별, 친구관계, 교통안전 의식이었으며, 김복주(2001)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성격, 출생순서, 주거형태, 부모의 학력이었다. 이렇듯 안전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하여 각 영역을 세분화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안전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보건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반복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태도형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전의식이 고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안전 보건교육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의식개선이 중요하기에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능동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교육이 중요하며, 체계적이고 다양한 안전교육 방법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사고 발생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3년 02월 01일에서 2013년 02월 15일까지 경기 일부지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300부이었고,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지 34부를 제외한 26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별에 따른 사고발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으며, 사고를 경험한 학생 중에서도 남자가 더 높았다($\chi^2=5.142, p=0.029$). 또한 학교형태에 따른 사고발생 유무를 조사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별로 등교하는 학생에게 사고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1.447, p<0.05$).
2. 사고경험이 없는 학생이 사고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안전의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3.828, p<0.01$), 평소 안전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4.285, p<0.001$).
3. 부모님이 안전교육을 자주 실시할수록 학생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257, p<0.05$).
4. 사고발생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사고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p<0.05$), 보건교사에게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태도형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전의식이 고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교육이 요구되며,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강준구. 초등학생의 성격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양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2. 고석. 어린이 안전교육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6.
3. 공배완, 안황권. 초등학교 안전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치안행정논집 2009;6(2):279-298.
4. 권상순.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
5. 권상도. 학교 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6. 김지영.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안전교육 실태 비교[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7. 김소선, 이은숙.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와 관련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1999;29(1):117-128.
8. 김복주. 농촌지역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실태[석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9. 남상길. 서울 초등학교의 안전교육 현황과 교내 안전사고 실태조사[석사학위논문].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10. 박대성. 초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사고 발생 실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북: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
11. 박화숙, 정문숙, 김용숙. 초등학교의 안전생활 실태 및 아동의 안전생활에 대한 지식과 태도. 경북대 경북간호과학지 2000;4(1):67-80.
12. 박혜연. 학교생활안전사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의 학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측정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충북: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13. 보건복지부. 아동안전손실비용 보도자료. 서울: 보건복지부, 2006.
14. 신경남. 초등학교 안전사고의 실태 및 교사의 인식분석[석사학위논문]. 충남: 건양대학교 대학원, 2006.
15. 심은순. 초등학생의 안전의식 및 실천도와 안전사고 발생 실태[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16. 양혜리. 초등학생의 성격 특성 및 불안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2008.
17. 윤선화.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3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 2012;16(4):679-700.
18. 이명선, 박경옥. 학교의 안전교육 관련 특성이 청소년의 사고발생 예측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6;21(2):147-165.
19. 이창희.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경기: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0.
20. 이형엽. 학교안전사고와 성격특성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21. 이해진. 초등학생 학교안전사고의 성별 위험행동특성[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22. 임현주. 초등학교 안전의식과 안전실천과의 관계분석[석사학위논문]. 경북: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23. 전양금. 중학교 남학생의 성격특성과 결석 및 사고발생과의 관련성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3.

24. 정우승. 학교안전사고 실태분석과 그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석사학위논문].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25. 지미영. 학교사고의 위험요인 분석[석사학위논문]. 강원: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26. 통계청. 2010년 사망원인 통계. 서울: 통계청, 2010.
27. 한형상, 손기상. 초등학교학생의 안전의식 실태 분석 연구-6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한안전경영학회지 2011;13(1):9-68.
28. Heinrich H.W., Dan Petersen, Nestor Roo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 safety management approach-5th ed., New York, McGraw Hill, 1980.
29. Sim, E. S. Safety-awareness, safety-practice and accident occurrence among elementary students. J. Korean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004;18(2):258-275.